

편향성 논란 휩싸인 전남지노위

GGM 노조위원장 징계·노조 비판 소식지 부당 노동행위 결정 지역업계 “집회·시위 우려 눈치보고 중앙노동위 떠넘기기” 비판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편향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노사 문제를 중재하는 역할보다 노동자에 치우친 판단을 내린 뒤 최종 심의기구인 중앙노동위원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마저 기업들 사이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지노위가 명백한 사안조차도 불만을 품은 노동조합의 집회·시위를 우려, 눈치보기를 판단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전남지노위가 최근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노동자에게 내린 징계에 부당하고, 사내 소식지에 실린 노조 비판 글을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기업들 사이에서 소식지 노조 비판글을 부당노동행위로 보는 건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면서 지노위 편향성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14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전남지노위는 지난 11일 심문회의를 통해 GGM이 노동자에게 내린 징계 1개월의 징계와 회사소식지에 노조의 행태를 비판한 것을 지배·개입 부당행위라고 봤다.

사측은 금속노조 GGM 지회장이 회사 작업장 내 서서 일하는 라인에 설치한 간이의자를 철거하라는 사측 지시를 거부해 명령불복종,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 1개월의 징계를 결정했

데, 지노위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징계 사유로 명백하다는 입장이다. 통상 기업 취업규칙에 상사의 명령에 따를 것이 적시됐는데, 근로계약 당시 직접 서명을 하는 만큼 지시에 따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기업 안팎에서는 단순히 회사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넘어 이로 인해 생겨나는 회사 내부의 동요 및 무질서를 유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도 나온다.

회사 소식지에 노조를 비판하는 내용을 실은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본 것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GGM은 사내 소식지에 노조가 외부로 배포한 보도자료 내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글과 사내에서 외부 인원을 초청해 벌인 행사 당일날, 집회를 한 것을 지적했는데, 전남지노위는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봤다.

대기업에서 20년 간 노무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노조의 잘못된 주장을 사내 구성원에게 바로잡는 글로, 팩트에 기반해 조목조목 비판한 글로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타 기업의 경우 더욱 센 어조로 비판하는 경우도 적지않은데, 전남지노위의 판단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평

가했다.

사실 GGM 사례뿐만 아니라, 기업 노무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남지노위의 심의 결과에 기대감이 없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노위가 노동자 편향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잦아 지노위는 절차적 요소로만 보고, 중노위 심의를 준비하거나, 여의치 않으면 행정심판을 대비한다는 얘기가.

특히 기업 노무관계자들 사이에서 전남지노위의 편파 판정의 이유에 대해 사용자 편을 들어줄 경우, 이에 반발해 청사 앞에서 노동조합이 집회를 벌이는 것이 부담스러워져서 인 것 같다는 평가는 아쉬운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기업 노무 관계자는 “이미 업계에서 전남지노위의 노동자 편파 판정은 익히 알려져 있다. 별다른 기대감도 가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GGM의 경우 노사상생협약서를 통해 35만대 생산 전까지 사실상 무노조에 합의했는데, 노조를 만들고 해외 수출이 결정되는 등 중요한 시기에 노조가 회사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노위는 정확한 잣대로 평가를 해야됨이 분명하지만, GGM의 경우 전국 최초 상생형 일자리라는 점에서 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한 평가와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조현상(오른쪽) HS효성 부회장이 지난 12일 열린 ABAC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한상의 제공)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BAC 의장 선임 대이은 ‘민간 외교관’ 행보 국내외 주목

선친 한미 FTA 체결 등 역할

내년 한국 개최 4차례 회의 주제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부친인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대를 이어 ‘민간 외교관’ 역할로 행보를 넓혀 나가면서 국내외 재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조 부회장은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기업 부문 자문기구인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부친인 조 명예회장의 뒤를 이어 경제계를 대표하는 민간 외교 활동 전면에 나서게 됐다.

조 명예회장은 생전 한미재계회의의 위원장을 맡아 한미 FTA 체결과 관련해 민간 소통 장구 역할을 했고, 10여년 간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는 등 국내 1세대 민간 경제 외교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조 부회장의 이번 ABAC 의장 선임을 놓고 재계에서는 대(代)를 이은 민간 외교 활동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4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조현상 부회장은 최근 페루 리마에서 열린 ABAC 4차 회의 후 조 부회장이 만장일치로 2025 ABAC 의장으로 선임됐다. ABAC은 APEC에 민간 기업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설립한 자문기구다. 한국이 내년 APEC 의장국이 되면서 ABAC 의장도 한국 몫이 됐는데 조 부회장은 한국 기업을 대표해 의장에 선임됐다.

ABAC은 건의문을 작성해 APEC 정상·민간 자문회 간 대화에서 경제계 건의를 전하고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는다.

조 부회장은 내년 2월부터 4차례 회의를 주재하고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에서 기업인의 제안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올

해 건의문에는 디지털 교역 환경 개선,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구축, 녹색경제 촉진 등 모두 26개 과제가 담겼다.

조 부회장은 재계 수장들 가운데 민간 경제 외교 활동에 관심이 많은 인물로 꼽힌다. 당장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포럼인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리더들과 소통했다. 조 부회장은 2006년부터 꾸준히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오며 다보스포럼과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다.

2007년에는 다보스포럼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YGL)’로 선정된 데 이어, 2010년에는 주요 20개국(G20)의 ‘영 글로벌 리더’ 조직인 ‘YGL G20 이니셔티브’에 유일한 한국인 멤버로 이름을 올렸다.

다보스포럼 외에도 현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이사를 맡아 글로벌 경영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 부회장의 이 같은 행보는 선친인 조 명예회장과 닮았다. 조 명예회장은 국내 기업사의 1세대 민간 경제 외교관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2000년 한미재계회의의 위원장을 맡아 한·미 FTA 체결 필요성을 가장 먼저 공식 제기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한·미 FTA 민간 소통 장구 역할을 맡았고, 체결 이후엔 미국 의회를 방문해 한·미 FTA 비준을 호소하기도 했다. 2005~2014년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아 두 나라 민간기업 간 교류를 넓히는 데도 한몫했다. 한·일 FTA도 그가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았을 때 추진됐다.

HS효성 관계자는 “조 부회장이 평소 직원들에게 ‘세계 무대에서 한국 기업의 위상이 높아지는 데 힘을 보태고 싶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해왔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플레이 스팟’

MZ세대 브랜드 대거 입점

패딩·가방·신발 할인판매

광주신세계가 지난 1일 ‘플레이 스팟’을 오픈하고, MZ세대가 선호하는 트렌디한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키는 등 다채로운 상품과 즐길거리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

대표적으로는 ‘노이어’와 ‘드로우핏’, ‘세터’ 등의 브랜드가 신규 입점하면서, 젊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붙잡고 있다.

노이어는 디자이너 출신 이영근 대표가 런칭한 브랜드로, 고급 소재와 독창적인 디자인을 지녔으면서도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MZ세대 고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세터 역시 여유로운 감성의 스타일로 20~30대 고객의 수요가 높다.

이처럼 광주신세계는 플레이 스팟에 젊은 세대 유입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브랜드들을 선보이면서, MZ세대의 놀이터로 꾸리고 있다.

또 상품군 역시 다양해, 젊은 세대부터 온 가족이 함께 입기 좋은 코트를 선보이는 ‘코닥’, ‘풋볼 스탠다드’ 등의 브랜드도 플레이 스팟에서 만나볼 수 있다. 플레이 스팟 입점 브랜드들은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하고 있다.

캐주얼 브랜드 ‘NFL’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겨



울 패딩 등을 최대 70% 할인판매하고, 이 밖에도 대부분 품목들에 대해서는 5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최근 플레이 스팟에서 문을 연 ‘노매뉴얼’에서는 엠알아이 후디를 60% 할인한다. 해당 제품은 조기판매가 될 수 있다.

‘풋볼 스탠다드’는 오는 30일까지 맨투맨 제품들을 50% 할인가에 선보인다.

이 밖에도 플레이 스팟에서는 가족들이 모두 참

여 가능한 게임시설 ‘스타 게임 파크’, 우산과 보냉백 등 일상 속 실용적인 소품을 판매하는 ‘위글위글’ 매장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이정일 광주신세계 신관팀장은 “플레이 스팟은 폭넓은 연령대 고객들이 트렌드를 살피며, 한 자리에서 쇼핑까지 가능한 공간이다”며 “앞으로도 쇼핑의 즐거움과 트렌디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선사하는 플레이 스팟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광주은행, 의료인 맞춤형 신용대출 ‘메디컬파트너론’ 출시

안정적 병원 운영 돕기

광주은행은 14일 신용대출 상품 ‘메디컬파트너론’을 신규 출시했다.

메디컬파트너론은 의사들의 병원 개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병원 운영을 돕기 위한 맞춤형 신용대출 상품이다.

신청 자격은 광주·전남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예정인 개업 의사(한의원 포함), 개업 약사, 개업 수의사다.

대출한도는 최대 4억원으로, 대출 신청자의 전문 진료과목 및 연 매출액, 부동산 여부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대출금리는 시설자금 최저 연 4.37%~최고 연 7.60%, 운영자금 최저 연 4.79%~최고 연 8.02%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조건을 충족하면 개인당 최대 연 1.50%포인트(p)까지 제공한다. 우대금리 제공 조건은 ▲가맹점 결제대금 입금 시 연 0.40%p ▲의료보험금여 입금 시 연 0.40%p ▲신용(체크)카드 사용 또는 신규 시 연 0.20%p ▲내부 그룹분류 및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연 0.50%p의

혜택을 제공한다. 상세 내용은 가까운 영업점 방문 또는 광주은행 기업뱅킹 홈페이지, 고객센터(1600-4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문수 광주은행 데이터상품전략부 부장은 “앞서 지난 8월 출시한 ‘메디컬파트너통장’에 이어 의료전문직 자영업자 고객들의 개업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신규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며 “지역 전문 의료인들이 개업할 때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한전 3분기 영업이익 3조 3961억원...8년만에 최고

5개 분기 연속 흑자 기록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올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영업이익도 8년여만에 최고 수준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한전의 재무구조 정상화에 속도가 붙었고, 국제 유가 등의 하락으로 영업비용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전은 지난해 3분기 전기를 팔면 팔 수록 손해를 보는 역대급 구조를 해소한 뒤, 5개 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4일 한전이 공시한 ‘2024년 3분기 실적’에 따르면 한전은 올 3분기 매출 26조 1034억원, 영업이익 3조 396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7%, 70.1% 증가한 수준이다. 올 3분기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한전의 올해 1~3분기 연결기준 누적 매출은 69조 8698억원으로 전년 동기(65조 6865억원)에 견줘 4조 1833억원(6.4%) 증가했다.

누적 영업이익은 5조 9457억원을 기록했다. 앞서 한전은 지난해 상반기 국제 정세 악화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낮은 전기요금 등으로 역대급 구조가 지속되면서 전년 같은기간 6조 4534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매출이 4조 1833억원 증가했고, 한전이 지출해야 하는 영업비용은 연료비, 전력구입비가 감소하면서 8조 2158억원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개선됐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이로써 한전은 지난해 3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1~3분기 한전의 전력 판매량은 418.4 TWh(테라와트시)로 전년 동기(415.1TWh) 대비 0.8% 증가했다. 더불어 전력 판매단가 역시 1 kWh 당 161.5원으로 1년 전(151.1원)보다 6.9% 증가하면서 전체 전력 판매수익은 8.0% 늘어난 66조 7279억원을 기록했다.

한전 관계자는 “재정 건전화와 위해 국민께 약속하던 자구노력을 철저히 신속하게 이행하고, 전기요금의 단계적 정상화와 전력구입비 절감 등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kwangju.co.kr

이계영 금호고속 총괄사장 은탑산업훈장

이계영(사진) 금호고속·금호익스프레스총괄사장이 14일 열린 ‘제38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이 총괄사장은 여객 운송업계에 헌신하면서 국내외에서 한국 운수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특히 이 총괄사장은 전라남도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과 전국버스연합회 부회장을 맡아 ‘무파괴·무노사분규’를 실현하는 등 지역사회와 업계 발전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계영 총괄사장은 “이번 영예로운 수상을 겸손한 자세로 더 매진하는 계기로 삼고, 그동안의 경

험과열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육상운송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육운의 날은 1903년 고종 황제가 경복궁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날(11월 14일)을 기념해 1987년에 제정된 날로, 한국의 육상 운송업 발전을 되돌아보는 날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주)디자인바이 ‘디자인 선도기업’ 선정

광주지역 산업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바이가 3회 연속 대한민국 디자인 선도기업으로 선정됐다. 14일 광주디자인진흥원에 따르면 ㈜디자인바이가 ‘2024 대한민국 우수디자인 전문기업’ 중 선도기업 부문에 최종 선정됐다.

우수디자인 전문기업 선정은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한국디자인진흥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디자인 전문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선도기업 선정은 디자인 전문회사 가운데 ▲업력 7년 이상 ▲최근 3년간 매출 10억원 이상 ▲디자인 전문인력 5인 이상 규모 등 조건을 충족한 디자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총 10여개 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은 향후 2년동안 선도기업 지위가 유지된다.

㈜디자인바이는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출시

하고, 디자인을 해외 수출했을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모델인 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는 등 혁신 역량도 호평을 받았다.

최태웅 ㈜디자인바이 대표는 “그동안 지역기업, 고객과 함께 끊임없이 디자인을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디자인으로 지역민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jang@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18.86 (+1.78)
▼ 코스닥	681.56 (-8.09)
▲ 금리(국고채 3년)	2.940 (+0.001)
▼ 환율(USD)	1402.70 (-3.90)